

# 「다리미가 있는 풍경(アイロンのある風景)」론

- 회피가 초래하는 위험성을 중심으로 -

이 혜 인\* · 윤 혜 영\*\*

(e-mail : xelfinx@hanmail.net)

## < 목 차 >

1. 들어가며
2. 직시하길 회피한 문제와의 조우
3. 문제로 인해 간혀버린 현재의 삶
4. 회피에 내재된 위험성
5. 나오며

キーワード：アイロンのある風景(Landscape with Flatiron), 神の子どもたちはみな踊る(All God's Children Can Dance), 村上春樹(Murakami Haruki), 回避(Evasion), 自己反省(Self-reflection)

## 1. 들어가며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1949~, 이하 ‘하루키’)의 연작 단편집인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神の子どもたちはみな踊る)』(『新潮社』, 2000)<sup>1)</sup>는 “지진의 다양한 여파를 받으며 다가올 사린 사건의 (무의식적인) 무거운 예감”<sup>2)</sup>이라는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1995년 발생한 일련의 두 사건 사이의 불안감이 깃든 시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sup>3)</sup>

\* 주저자,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대학원 일문학 박사과정 수료, 일본현대문학 전공

\*\* 공동저자,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일본근현대문학 전공

1) 본 단편집에 수록된 6개의 작품 중 「UFO 구시로에 내리다(UFOが釧路に降りる)」, 「다리미가 있는 풍경(アイロンのある風景)」,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神の子どもたちはみな踊る)」, 「타일랜드(タイランド)」, 「개구리군, 도쿄를 구하다(かえるくん `東京を救う)」는 1999년 발간된 잡지 『新潮』의 8월호부터 12월호까지 발표되었고, 2000년 2월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神の子どもたちはみな踊る)』라는 단행본 발간 시 마지막 작품인 「벌꿀파이(蜂蜜パイ)」가 추가로 수록되었다.

2) 村上春樹(2010) 「『神の子どもたちはみな踊る』解題」 『村上春樹全作品1990~2000』3, 講談社. p.269

3) 1995년 1월에 17일에 발생한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과 1995년 3월 20일 옴진리교에 의해 발생한 도쿄 지하철 사린(サリン) 사건을 말하며 동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두 사건 사이인

본 작품에 대한 연구의 초점은 특히 지진에 집중되어 있는데, “간접적인 형태로 지진의 영향을 받아 인생이 변하는 체험을 했”<sup>4)</sup>다고 보거나 지진이 “스스로가 지금까지 내재되어 있었으나 자각하지 못했던, 공허함, 무(無)의 근원, 폐쇄된 마음을 인식”<sup>5)</sup>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논의 대부분이다. 그리고 “지진이라는 천재를 인간 내면의 메타포로 그리는 안이함”<sup>6)</sup>이라고 지적하며 사회적 반응이 다소 미약하다고 비판하는 논도 있다.

하루키는 지진 그 자체보다는 지진의 본질을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의탁하여 이야기하는 것”<sup>7)</sup>에 목적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미즈 요시노리(清水良典)의 논의 주목되는데, 그는 본 단편집에 수록된 「타일랜드(タイランド)」, 「개구리군, 도쿄를 구하다(かえるくん、東京を救う)」, 「벌꿀파이(蜂蜜パイ)」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하루키가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간의 “내면적인 자성의 모티브를 촉구”<sup>8)</sup>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논자 또한 시미즈의 논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인간의 자세 또한 제시하고 있고, 지진과 음진리교 사건의 중간시점인 2월을 작품의 배경으로 설정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에서는 시미즈가 주목하지 않은 「다리미가 있는 풍경(アイロンのある風景)」을 중심으로 회피가 초래하는 위험성을 통해 자성의 메시지의 구체상을 규명하여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자 한다.

1995년 2월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시간적, 사회적 배경에 주목하여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는 동 단편집에 “음진리교의 사린 사건, 이윽고 다가올 재앙, 또는 신흥종교라고 하는 그들이 드리워져 있다”고 보고 있다. (加藤典洋(2004) 「第四章 地震と父なるものの影—『神の子どもたちはみな踊る』」 『村上春樹 イエローページ PART2』, 荒地出版社. pp.103-104)

- 4) 山根明敏(2013) 「村上春樹 『アイロンのある風景』を読む—Jack London, Raymond Carverとの間テクニシティからの研究」, テキスト研究会. p.42
- 5) 福田和也(2000) 「「正しい」という事—あるいは神の子どもたちは「新しい結末」を喜ぶことができるか?—村上春樹 『神の子どもたちはみな踊る』論」 『文学界』54(7), 文芸春秋社. p.191
- 6) 中元さおり(2013) 「村上春樹 『かえるくん、東京を救う』における〈コミットメント〉の行方 : 「雪かき仕事」と「バトンタッチ」(生塩睦子教授退任記念号)」 『広島経済大学研究論集』35(4), 広島経済大学経済学会. p.18
- 7) 村上春樹(2010) 前掲注, p.271
- 8) 시미즈는 「타일랜드」의 사쓰키의 결심, 「개구리군 도쿄를 구하다」의 싸움, 「벌꿀 파이」에서 준페이와 “지금과는 다른 소설을 쓰자”고 다짐하는 모습에 주목하며 각 인물들이 ‘지진’ 이후 생으로 전환하는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주장처럼 동 작품에 등장하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자연 재해를 넘어 독자들에게 자성의 모티브를 촉구하고 있는 것에는 동의하나 시미즈의 논에는 제2작 「다리미가 있는 풍경」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가 전달하는 자성의 모티브는 긍정적인 생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이므로 본 논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자성의 메시지와는 다소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清水良典(2006) 『村上春樹はくせになる』, 朝日新聞社. p.56)

## 2. 직시하길 회피한 문제와의 조우

「다리미가 있는 풍경」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준코(順子)와 단골손님인 미야케(三宅)가 주요인물로 등장한다.

먼저 사이타마(埼玉)현에 살던 준코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하여 정처 없이 헤매다가 이바라키(茨城)현의 어느 작은 해안가 마을에 정착하였다. 현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두 살 연상인 서퍼 게이스케(啓介)와 동거를 하고 있다.

준코가 가출을 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단지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고 무언가에 집중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호흡이 가빠져 “학교에 가는 것이 고통”과도 같았다고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의 부적응이 그녀의 가출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준코가 가출을 결심한 것은 비단 학교 문제에서만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었다”는 회상 장면을 통해 준코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실체가 단편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주 어렸을 때, 준코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다. 휴일에는 둘이서 곧잘 여기저기 놀러 다니곤 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고 있으면 왠지 자랑스럽고 든든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 생리가 시작되면서 음모가 자라고 가슴이 커지게 되자 아버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묘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중학교 3학년이 되어 키가 170센티미터가 넘는 이후로 아버지는 그녀에게 거의 한 마디 말도 걸지 않았다.

小さな子どもの頃、順子は父親と中が良かった。休日にはよく二人でいろんなところに遊びに行った。父親と手をつないで歩いていると、わけもなく誇らしく、心強かった。しかし小学校の終り近くに生理が始まり、陰毛がはえ、胸がふくらみだしてからは、父親はそれまでとはちがった奇妙な視線で彼女の顔を見るようになった。中学三年生になって身長が170センチを超えてからは、父親はほとんどなにも話しかけないようになった。(p.138)<sup>9)</sup>

다정했던 아버지의 시선이 사춘기 무렵부터 “기묘한 시선”으로 변했고 가출 이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날 찾지 말아줘”라고 쓴 편지의 수신자를 ‘어머니’ 앞으로 했다는 기술로 미루어볼 때 준코는 아버지와의 관계

9) 본문 인용은 村上春樹(2010) 「アイロンのある風景」 『村上春樹全作品1999~2000』 3, 講談社에 의한다. 번역은 본자가 하였고 인용문 뒤에 인용페이지를 기입하였다.

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야마네 아키토시(山根明敏) 또한 동 단편집에는 아버지와의 불화(父との確執)가 반복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다리미가 있는 풍경」의 준코의 경우 “아버지와의 근친상간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sup>10)</sup>고 언급하고 있다. 준코와 아버지의 근친상간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및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작품 안에서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고뇌하던 준코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의 수단으로 가출을 결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바라키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준코는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인식하게 되는데, 그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이 모닥불이다. 준코는 해안가에서 미야케가 피운 모닥불을 바라보다가 문득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의 감정을 느낀다.

그 때 모닥불을 바라보면서 준코는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문득 느꼈다. 무언가 깊이 있는 것이었다. 감정의 명울이라고 해야 좋을지, 관념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현실적인 중압감을 가진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몸속을 천천히 달려 빠져나갔고, 그리운 것 같은, 가슴을 저미는 듯한 불가사의한 감촉만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것이 사라진 후 한참 동안 그녀 팔에는 소름 같은 것이 돌아 있었다.

そのとき順子は、焚き火の炎を見ていて、そこに何かをふと感じることになった。何か深いものだった。気持ちのかたまりとでも言えばいいのだろうか、観念と呼ぶにはあまりにも生々しく、現実的な重みを持ったものだった。それは彼女の体のなかをゆっくりと駆け抜け、懐かしいような、胸をしめつけるような、不思議な感觸だけを残してどこかに消えていった。それが消えてからしばらくのあいだ、彼女の腕には鳥肌のようなものがたっていた。(p.141)

모닥불이 “자신 마음속에 감추어 둔 감정”을 비추어 준다는 미야케의 말을 통해 유추해보면 준코가 느낀 “무언가 깊이 있는 것”의 실체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현실적인 중압감을 가”진 나머지 준코가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준코는 가출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버지와의 문제가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미야케가 피운 모닥불을 바라보다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된 준코는 이 일을 계기로 자주 그와 함께 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모닥

10) 山根明敏(2013) 前掲注, p.42

불을 봤을 때 느꼈던 “무언가”의 실체를 인식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거기에 있는 불꽃은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삼켜버리며 용서해 주는 듯이 보였다. 진정한 가족이란 분명 이러한 것이라고 준코는 생각했다.  
そこにある炎は、あらゆるものを黙々と受け入れ、呑み込み、赦していくみたいに見えた。  
ほんとうの家族というのはきっとこういうものなのだろうと順子は思った。(p.137)

준코가 매번 모닥불을 바라볼 때 마다 가족에 대해 떠올린다는 것은 그녀가 감추어 두고 있는 감정이 가족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준코가 처음 모닥불을 바라볼 때 느꼈던 “그리운 것 같은 가슴을 저미는 듯”한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무언가’의 실체는 바로 자신이 회피해왔던 ‘가족’문제에서 비롯된 공허감인 것이다.

이처럼 준코가 모닥불을 바라볼 때마다 가족을 상기시킨다는 점, 나아가 그녀가 학창시절에 읽었던 잭 런던(Jack London)의 『모닥불』이라는 작품을 떠올리는 장면을 통해 모닥불이 그녀가 평소에 간과하고 있던 무언가를 계속해서 인식시켜주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닥불』은 준코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숙제로 읽었던 작품인데, 알래스카에서 홀로 여행을 하던 주인공이 불을 붙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준코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주인공이 기본적으로 “죽음을 염원”하고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자신에게 걸맞은 결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전력을 다해 불을 붙였던 것인데,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살아남는 것을 목적으로 압도적인 것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남자의 “근원적인 모순성”은 준코의 마음 깊은 곳을 뒤 흔들어 놓았다. 이어 준코는 그의 죽음에서 “평온한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이는 문제나 두려움의 실체, 즉 죽음을 직시하면서 자신의 노력이 결국 헛수고가 될지 모르나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했던 한 인간의 생이 타오르는 마지막 모습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코는 소설에 등장하던 남자처럼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거나 치열하게 맞서지 않았다. 이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회피만 하는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형으로 볼 수 있다. 준코는 늘 무언가에 집중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호흡이 가빠지며 심장 고동이 불규칙”해져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했

고 “무언가를 하기 시작해도 끝까지 해내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식으로 변명하며 문제를 직시하기보다는 도망쳐버리는 가장 쉬운 방식만을 선택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속이 텅 빈 껌데기”와 같은 공허감을 느낄 뿐, 『모닥불』의 주인공과 같은 “평온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 3. 문제로 인해 간혀버린 현재의 삶

모닥불을 피우는 것을 좋아하는 미야케는 고베시 히가시나다구(東灘区) 출신의 중년 남성이다. 준코는 함께 일하는 점원을 통해 5년 전 그가 이 마을에 이사를 왔으며 현재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미야케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거의 하지 않고 살았지만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간사이(關西)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었고, 혼자 해변가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것이 자주 목격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사람들 눈에 띄었던 것이다.

준코가 미야케에게 호기심을 갖은 것은 그가 매일 세 번씩 편의점을 방문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준코가 한 번에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 않고 번거롭게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 묻자 미야케는 집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불편하지 않느냐는 준코의 말에 그는 “냉장고가 있으면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이라 대답할 뿐이었다.

미야케의 집에 냉장고가 없는 이유는 지진이 발생한지 한 달 정도가 지난 2월의 어느 새벽에 밝혀지는데, 함께 모닥불을 쬐던 미야케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자신은 “냉장고에 갇혀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깜깜한 냉장고 속에서 죽은 사람의 손이 나타나 그를 냉장고 속으로 끌어들이는 꿈을 반복적으로 꾸고 있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한 나머지 “벌써 몇 번씩이나 죽은 느낌이 들 정도”라고 말한다. 즉 냉장고가 ‘죽음’을 상기시키는 두려움의 실체였기 때문에 그는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냉장고를 집에 두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야케의 행위는 자신이 품고 있는 두려움의 본질을 외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불편하지만 싫은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라는 식으로 회피하는 자세를 취해온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야케가 이러한 악몽을 꾸지 않는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됐다, 살았다” 하고 안도할 때쯤 다시금 그 악몽이 찾아와 그를 괴롭힌다는 대목이다.

“기억해 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됐지. 이따금 그 꿈에서 해방되는 시기도 있었어. 1년인가, 2년 정도 그런 꿈을 전혀 꾸지 않았던 적도 있었어. 그럴 때는 만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 하지만 언제나 반드시 되돌아오고 마는 거야. 이제 됐다, 살았다 싶을 때쯤 다시 시작되지.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思い出せないくらいずっと昔からや。ときどきそういう夢から解放される時期もあった。一年か、そやな……二年くらいその夢をまったく見ない時期もあった。そういうときにはいろんなことがそのままうまくいこうに見えた。でもな、ちゃんと戻ってきよるんや。もう大丈夫やな、助かったな、と思った頃にまた始まる。それが始まると、もうあかんねん。どうにもならん」

(p.146)

이것은 미야케가 문제에 대해 표면상의 회피만 했을 뿐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라는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의 악몽은 여전히 계속되었던 것이다.

미야케가 왜 이러한 악몽을 꾸는 것인지, 그 꿈을 꾸도록 만든 미야케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밤중에 모닥불을 지피다가 지진피해를 언급하는 게이스케와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

“미야케씨, 고향이 고베 쪽이라고 언젠가 말했었지요” 게이스케가 문득 생각이라도 난 듯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난 달 지진은 꽤찮았대요? 고베에는 가족이 없었나요?”

“글쎄, 잘 몰라, 나는 그쪽하고는 더 이상 관계가 없으니까. 옛날 이야기”

(중략)

“그렇지만 진지하게, 정말로 꽤찮은 거예요? 역시 아는 사람이 있지요. 텔레비전 뉴스, 보고 있어요?”

“그 이야기, 그만두지”라고 미야케는 말했다. “위스키 마시지 않을래?”

「三宅さん、出身は神戸のほうだっていつか言っていましたよね」、啓介がふと思い出したように明るい声で尋ねた。「先日の地震は大丈夫だったんですか？神戸には家族とかいなかったんですか？」

「さあ、ようわからん。俺は、あっちとはもう関係ないねん。昔のことや」

(中略)

「でもマジな話、本当に大丈夫だったんですか？やっぱり知り合いとかいるんでしょう。テレビのニュース、見えます？」

「その話、やめようや」と三宅さんは言った。「ウイスキー飲まへんか？」(pp.136-137)

“가족과 관련된 무언가의 일로 인해 홀로 집을 나와 외로운 삶을 살고 있거나 무언가에 쫓겨 가족마저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sup>11)</sup>는 지적처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길 꺼려하는 미야케의 모습을 통해 그가 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가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 바보천치일 뿐이야”라고 자책하면서 문제 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미야케는 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시작된 악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준코와 미야케는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꺼져가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미야케의 어깨에 기대며 자신이 “속이 텅 빈 껍데기”와 같다고 눈물을 흘리는 준코에게 미야케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즉 두 사람은 서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인식하며 동질감을 느꼈기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 4. 회피에 내재된 위험성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는 준코와 미야케는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왔다. 물론 이들의 회피적인 자세는 당장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동 작품에서는 이러한 그들의 회피적인 자세가 머지않아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모닥불을 붙이는 장면, 미야케의 꿈, 『모닥불』의 작가 잭 런던의 죽음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미야케가 새벽에 준코와 게이스케를 불러내어 모닥불을 붙이는 장면에서 불이 붙길 단념한 순간 한줄기 연기가 어디선가 피어오르는 묘사는 두 사람의 회피가 불러일으킬 문제에 대한 예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11) 윤혜영(2017)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神の子どもたちはみな踊る)』론 - 「다리미가 있는 풍경(アイロンがある風景)」과 「타일랜드(タイランド)」속의 “어딘가에 있을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日本学研究』 50,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351



이제 불이 불기를 단념하려고 했을 때 문득 흰 연기 한 줄기가 봉화가 되어 위로 올라갔다. 바람이 없는 탓에 연기는 끊어진데 없이 선명한 한 줄기 끈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그 어딘가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 자체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あきらめかけたところに、白い煙が一筋、のろしとなってふっと上にあがる。風がないせいで、煙は切れ目のない一本の紐となって空に上がっていく。どこかに火がついているのだ。でも火そのものはまだ見えてこない。(p.134)

불이 꺼진 게 아니냐고 묻는 게이스케의 질문에 미야케는 “불이 없는 곳에 연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불타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뿐” 이라고 말한다. 즉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딘가에 불이 붙어 있”기에 곧 세차게 타오를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닥불의 묘사를 통해 준코와 미야케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역시 지금은 “마음속에 감추어 둔” 채 어딘가에 잠재되어 있으나 이를 줄곧 회피하기만 한다면 큰 문제를 야기시킬 원흉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제4작인 「타일랜드」와 제5작인 「개구리 군, 도쿄를 구하다」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타일랜드」의 주인공인 사쓰키(さつき)라는 여성 역시 다년간 한 남자가 죽기만을 바라왔던 자신의 원망이 지진을 발생시킨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며 “그 지진을 불러일으킨 건 어쩌면 나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개구리 군, 도쿄를 구하다」에서 가타기리(片桐)를 찾아온 개구리 군(かえるくん)은 다년간 축적된 지렁이 군(みみずくん)의 분노가 도쿄에 큰 지진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한다. 두 작품 모두 지진이 개인의 원망이나 분노와도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다년간 축적된 결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올바르게 해소되어야 할 순간에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된 결과 지진이 비롯되었다는 점에 있다. 즉,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외면과 회피는 삶의 기반을 흔든 거대한 ‘지진’처럼 예기치 못한 커다란 여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미야케의 악몽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좁은 곳에서, 캄캄한 냉장고 안에서 조금씩 죽어가는 거야. 그것도 운 좋게 금방 질식사하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공기가 들어오고 있지. 그러니까 좀처럼 질식해서 죽을 수도 없어. 죽을 때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리지. 소리를 질러도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아. 아무도 내가 그곳에 갇혀 있는 걸 모르는 거야. 몸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곳이야.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거든.”

「狭いところで、真っ暗な中で、ちょっとずつ死んでいくんや。それもまいことずっと窒息できたらええけどな、そう簡単にはいかん。どっかから空気はかすかに入ってくる。だからなかなか窒息死できへん。死ぬまでにもものすごい長い時間がかかる。声を上げて誰にも聞こえへん。誰も俺のことに気づいてくれん。身動きもできんくらい狭いところや。どんなにあがいても内側からドアは開かへん」 (p.145)

미야케는 냉장고 안에 갇혀 서서히 죽어가는 꿈을 꾸는 것인데, 이것은 사쓰키와 지렁이가 불러일으킨 지진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축적해 온 문제가 초래하는 무서운 결과를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제를 회피해도 그것은 또 다른 형태로 발현된다는 메시지는 앞에서 언급한 준코가 읽은 소설작가인 잭 런던의 생애와 미야케의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미야케는 자신이 냉장고에 갇혀 죽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잭 런던도 오랫동안 자신이 어두운 밤바다에 빠져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잭 런던은 모르핀을 투여하여 자살하였다. 잭 런던의 죽음은 자신의 예감이 어긋나도록 일부러 자살을 강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미야케는 그의 죽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는 옳았어, 잭 런던은 시키먼 밤바다에 홀로 빠져 죽었어. 알코올 중독이 돼서 절망을 온몸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게 해서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죽어간 거야. 예감이라는 것은 말이야. 어떤 경우엔 일종의 대체품이야. 이를테면 죽음의 예감은 실제 죽는 건 아니지만 죽음과 똑같은 체험을 느껴 볼 수 있다는 거지. 어떤 경우엔 말이야, 그 대체품이 현실을 뛰어넘어 생생한 것이 될 수도 있어. 그게 예감이라는 행위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야.”

「しかしある意味では、彼は間違っていなかった。ジャック・ロンドンには真っ暗な夜の海で、ひとりぼっちで溺れて死んだ。アルコール中毒になり、絶望を身体の内までしみこませて、もがきながら死んでいった。予感というのはな、ある場合には一種の身代わりなんや。ある場合

にはな、その差し替えは現実をはるかに超えて生々しいものなんや。それが予感という行為のいちばん怖いところなんや。」 (p.147)

잭 런던은 자신이 바닷물에 빠져 익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를 회피하고자 술과 약에 손을 댔다. 이로 인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잠시 해방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켰고 결국 그의 삶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즉 잭 런던의 이야기는 자신에게 내재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는 채 회피했을 경우 초래될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는 미야케가 그린 그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준코는 미야케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고 묻자 그는 최근 다리미 하나가 놓여있는 방의 풍경을 그렸다고 말한다. 이에 다리미가 무엇이냐고 묻는 준코의 질문에 미야케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대답한다.

“그게 어째서 설명하기 어려운거죠?”

“그게 실제로는 다리미가 아니니까”

준코는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다리미가, 다리미가 아니다, 라는 건가요?”

“그렇지”

“즉, 그것은 무언가의 대체물인 거죠?”

“아마 그럴 거야”

“그리고 그것은 무언가를 대체물로밖에 그리지 못하는 거네요?”

「それがどうして説明するのがむずかしいの？」

「それが実はアイロンではないからや」

順子は男の顔を見上げた。「アイロンがアイロンじゃない、ということ？」

「そのとおり」

「つまり、それは何かの身代わりなのね？」

「たぶん」

「そしてそれは何かを身代わりにしてしか描けないことなのね？」 (p.148)

미야케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언가의 실체를 다리미로 대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물건으로 대체한다 한들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다리미’라는 형상으로 두려움을 대체하면서 이를 회피한 듯 보이지만, 그

것은 ‘냉장고’가 ‘다리미’로 대체되었을 뿐 그가 가진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실체는 다리미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두운 밤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두려워했던 잭 런던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투약한 약물로 인해 죽은 것과 동일선 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문제의식은 무엇일까? 이것은 마지막 장면에 잘 나타나 있는데, 어두운 밤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지피던 두 사람은 같이 죽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준코는 갑자기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해 불이 꺼지면 자신을 깨워달라고 부탁하며 잠이 든다.

“좀 자도 되요?”라고 준코는 물었다.

“응”

“모닥불이 꺼지면 깨워줄래요?”

“걱정하지 마. 모닥불이 꺼지면 추워져서 싫어도 눈이 떠질 거야.”

그녀는 머릿속에서 그 말을 반복해 보았다. 모닥불이 꺼지면 추워져서 싫어도 눈이 떠진다.

그리고 몸을 둥그렇게 말고 잠시 동안 그러나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少し眠っていい?」と順子は尋ねた。

「いいよ」

「焚き火が消えたら起こしてくれる?」

「心配するな。焚き火が消えたら、寒くなっていやでも目が覚める」

彼女は頭の中でその言葉を繰り返した。焚き火が消えたら、寒くなっていやでも目が覚める。それから体を丸めて、束の間の、しかし深い眠りに落ちた。(p.150)

다나베 아키라(田辺章)는 이 장면을 잭 런던의 『모닥불』에 등장하는 불에 비유하며 모닥불이 꺼진다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 꺼질지도 모른다는 결말”<sup>12)</sup>을 제시하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다나베의 지적처럼 ‘깊은 잠’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문제로부터 완벽하게 회피하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닥불이 꺼지면 추워져서 싫어도 눈이 떠진다”는 미야케의 말은 준코가 원하는 깊은 잠이 그리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도피의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행위는 또 다른 회피에 불과

12) 田辺章(2008) 「地震のあとで、焚火をおこす—村上春樹『アイロンのある風景』が映し出すジャック・ロンドン「焚火」」 『東洋大学人間科学総合研究所紀要』, 第8号東洋大学人間科学総合研究所. p.152

하며, 다시 눈을 뜬 현실에서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야케가 몇 년간 시달려 온 악몽에 벗어나고 준코가 깨지 않는 평안한 안식을 찾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야케가 말한 “죽는 방식을 생각하면 역으로 사는 방식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잭 런던의 작품 속 주인공의 모습과도 연관이 깊은데, 소설 속 남자는 죽음이라는 “압도적인 두려움”을 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을 영위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회피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문제와 필사적으로 싸운 결과 “평온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제4작인 「타일랜드」의 사쓰키의 모습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사쓰키는 자신의 아이를 죽이게 만든 한 남자에 대한 원망을 무려 30여 년간 품고 살아왔다. 그런 그녀의 마음 속 응어리를 엮본 가이드 겸 운전사였던 니밋트(ニミット)는 사쓰키를 마음을 치료해주는 노파에게 데려간다. 노파는 그녀의 마음속에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회고 딱딱한 돌이 들어 있으며 그 돌을 어딘가로 버려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화장을 한 뒤에도 여전히 그 돌이 남아있을 것이라 경고한다. 또한 노파는 사쓰키에게 “당신이 바란 일이 아니었는지 모르나 그 남자는 죽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것은 “당신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남자가 죽기만을 바라며 고베의 지진을 일으킨 것이 어찌면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쓰키에게 노파의 말은 자칫 모순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갈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니밋트의 언급을 통해 유추해보자면 사쓰키가 진정으로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서는 그녀가 증오해 온 남자와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쓰키가 “제대로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의 생존이 “행운과도 같은 것”인 것이다.

이처럼 사쓰키가 남자에 대한 원망을 해결해야만 마음의 돌을 버리고 죽음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듯이 준코와 미야케 역시 그들이 원하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깊은 잠’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면으로 직시하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5. 나가며

이상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리미가 있는 풍경」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성의 메시지의 구체상을 살펴보기 위해 준코와 미야케라는 주요인물을 통해 회피의 양상 및 그것이 초래하는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준코와 미야케는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일종의 도피자 또는 방랑자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해버리고 만 것인데, 준코는 해변에서 모닥불을 바라보며 다시금 그 문제를 상기하지만 여전히 방랑자의 자세를 보인다. 오래전부터 방랑자로 살아온 미야케가 냉장고에 관련된 악몽을 반복적으로 꾸는 것은 회피를 계속할 경우 발생할 준코의 미래이기도 하다. 결국 두 사람은 동반자살을 약속하면서 죽음을 통해 그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 죽기 전 모닥불 앞에서 깊은 잠에 빠지는 준코의 모습과 “모닥불이 꺼지면 추워져서 싫어도 눈이 떠진다”고 미야케의 말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준코의 깊은 잠은 지속될 수 없다는 말인데, 잭 런던의 『모닥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죽음이 “평온한 아름다움”이라는 기술과 「타일랜드」의 “이제는 제대로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참고로 해볼 때 준코와 미야케가 죽음으로 상징되는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회피가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옴진리교 사린 사건의 중간인 1995년 2월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지진’이 변화의 계기를 상징하기보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회피를 통해 축적되어 온 문제가 표면상으로 분출된 하나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하루키는 “전후 일본 역사의 흐름을 바꾼 전환점<sup>13)</sup>이 된 1995년의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더 이상 확고한 것이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sup>14)</sup>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이다. 즉 하루키가 작품의 시점을 2월로 설정한 것은 이전부터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도 회피해온 “우리 사회가 내포하고 있던 시한폭탄<sup>15)</sup>이 지진으로 발현된 것이며,

13) 데이ヴィッド·비링그 · 仲達志訳(2014) 『日本一喪失と再起の物語』(上), 早川書房. p.215

14)村上春樹(2010) 前掲注, p.269

15)村上春樹(2010) 前掲注, p.270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기만 하면 “지하의 어두운 장소에서 시간을 들여 조용히”<sup>16)</sup> 발생한 균열이 3월의 사건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윤혜영(2017)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神の子どもたちはみな踊る)』론 - 「다리미가 있는 풍경(アイロンのある風景)」과 「타일랜드(タイランド)」속의 “어딘가에 있을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日本学研究』 50,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351
- 加藤典洋(2004) 「第四章 地震と父なるもの影—『神の子どもたちはみな踊る』」 『村上春樹 イエローページ PART2』, 荒地出版社. pp.103-104
- 清水良典(2006) 『村上春樹はくせになる』, 朝日新聞社. p.56
- 田辺章(2008) 「地震のあとで、焚火をおこす—村上春樹「アイロンのある風景」が映し出すジャック・ロンドン「焚火」」 『東洋大学人間科学総合研究所紀要』, 第8号東洋大学人間科学総合研究所. p.152
- デイヴィッド・ヒリング·仲達志訳(2014) 『日本—喪失と再起の物語』(上), 早川書房. p.215
- 中元さおり(2013) 「村上春樹「かえるくん,東京を救う」における〈コミットメント〉の行方: 「雪かき仕事」と「バトンタッチ」(生塩睦子教授 退任記念号)」 『広島経済大学研究論集』 35(4), 広島経済大学経済学会. p.18
- 福田和也(2000) 「「正しい」という事、あるいは神の子どもたちは「新しい結末」を喜ぶことができるか?—村上春樹『神の子どもたちはみな踊る』論」 『文学界』 54(7), 文芸春秋社. p.191
- 村上春樹(2010) 「アイロンのある風景」 『村上春樹全作品1999~2000』 3, 講談社. p.134, pp.136-137, p.137, p.138, p.141, p.145, p.146, p.147, p.148, p.150
- 村上春樹(2010) 「『神の子どもたちはみな踊る』 解題」 『村上春樹全作品1990~2000』 3, 講談社. p.269, p.271, p.274
- 村上春樹·河合隼雄(1996) 『村上春樹、河合隼雄に会いにいく』, 岩波書店. pp.70-71
- 山根明敏(2013) 「村上春樹「アイロンのある風景」を読む—Jack London, Raymond Carverとの間テキスト性からの研究」, テキスト研究会. p.42

논문 투고 일자 : 2017. 10. 09.
논문 심사 일자 : 2017. 10. 26.
게재 확정 일자 : 2017. 10. 27.

16)村上春樹(2010) 前掲注, p.270

---

 < 要旨 >
 

---

 「アイロンのある風景」論  
 - 回避かもたらす危険性を中心に -

李惠仁・尹惠暎

本論は「アイロンのある風景」に内在されている自省のメッセージを具体的に究明するため、作品の登場人物である順子と三宅を中心に回避の様相及びそれがもたらした危険性について考察した論である。二人は家族に関する問題を抱え、現在他地で孤独な生活をしている放浪者だと言える。彼らは問題を解決するよりずっと回避してしまうが、順子の場合焚き火を見ながらその問題を想起するがずっと改善しようとなし。また長い間悪夢に苦しんでいる三宅の姿は、順子の回避が継続する場合、予測できる順子の未来だと言える。二人は一緒に死ぬことを約束しながら死を求めることで自分の悩みから完全な解放を図る。しかし最後の場面で深い眠りに落ちる順子の姿と対照的に「焚き火が消えたら寒くなっていやでも目は覚める」という三宅の言葉は意味が深い。Jack Londonの『焚き火』に登場する主人公の死が「静かで美しい」という記述と「タイランド」の「ゆるかに死に向かう準備をなさなくてはなりません」という言葉を参考にすると、二人が真の安らぎを得るためには自分の問題をきちんと解決すべきだというメッセージを見せる。この観点で作品の時間的背景が1995年の2月に設定されているのは、「地震」が変化の契機を象徴するより昔から回避して蓄積された問題が表面上に表したひとつの結果を見せるための設定だったと言える。

A Study on “*Landscape with Flatiron*”

-Focusing on the Avoidance and Potential Dangers-

Lee, Hye-In · Yun, Hye-Young

In this paper, we focused on the aspect of evasion and the dangers experienced by Junko and Miyake, the main characters, in order to concretely investigate messages of self-indulgence inherent in “*Landscape with Flatiron*” They can say that they are wanderers who have problems with their families and currently live a lonely life in other places. They prefer avoidance to solving their problems. They recall their problems while watching the bonfire, but there is not much improvement. The appearance of Miyake who has been suffering from a nightmare for a long time can be said to be Junko’s future which can be predicted when Junko’s avoidance continues. They promise to die together and they think that death will give them eternal comfort; they seek death to try to be fully released from their own troubles. However, as opposed to Junko who falls asleep in the last scene, the words of Miyake, “If the bonfire disappears, it gets cold, if it gets cold, you will wake up.” are meaningful. They say that the death of the boy appearing in Jack London’s “*Bonfire*” is “quiet and beautiful” and the phrase “prepare to die” from “*Thailand*” in order for them to get comforted; this message shows that the problem should be solved properly. From this point of view, the fact that the temporal background of the work is set in February 1995 does not signify that the “earthquake” is opportunity for change. Rather, problems accumulated over the years have begun to appear on the surface; so, it can be said that it was a setting to show one result.